

March 18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 마태복음 5:6, 6:25-34

갈망하면 채워집니다. 갈망과 채움은 인과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주를 따르는 자는 ‘주리고 목마른’ 자처럼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혹 주님과 갈증이 없다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마 5:6, 《메시지》성경).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시 34:8).

의를 갈망하면 의로 가득 채워집니다. ‘의’는 ‘윤리적인 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인 ‘공의’, 둘 다를 가리킵니다. 의를 갈망한다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간절히 찾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리고 목마르다’에 쓰인 원어는 극심한 짚주림과 티는 목마름을 가리킵니다.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갈망하되 끊임없이 계속하여 간절히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는 주님의 뜻을 더욱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듣고자 귀 기울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를’ 것입니다. 배부름은 허기나 갈증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족스럽게 포식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회 주십니다(약 1:5). 해야 할 바와 가야 할 바를 온전히 보여 주실 것입니다. 의를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신 뜻과 기준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의를 구하며 의를 행하는 자,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나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입니까?

- ❶ 매 순간,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구합니까?
- ❷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